

# 대중성 · 작품성 인정받은 국악 작품 유치

군산예술의전당,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모사업 선정 국악장르 2작품 무료 운영

군산예술의전당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우수작품 지역순회 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두 국악 작품을 관객들에게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작품 지역순회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대표적 공모사업으로 우수 국악 작품과 지역 공연장을 매칭해주고 작품료 전액을 지원해 지역 관객들에게 부담 없는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사업 선정으로 올해 6월과 8월 총 2작품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먼저 6월 29일에 진행 예정인 '차한광대 강제환생 프로젝트 환생전'은 1988년 창단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인 내드름 연희단의 작품으로

광대의 운명을 타고난 착한 광대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벌이는 생존기를 그린 작품이다. 환생전은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 풍물, 소고춤, 모듬북연주, 탈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연희와 맛깔 나는 재담을 통해 이 시대 광대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이어 8월 23일에는 '토리를 찾아서, 얼씨구!'가 진행된다. 토리는 한국에서 지방에 따라 구별되는 노래의 방식을 뜻하며, 이 공연에서는 각 지역 민요를 국악극 형식의 연희 공연으로 선보인다.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 토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공연을 진행하는 풍악광대놀이예술단은 군산시의 자매결연도시인 김천에서 활약

하는 팀이기에 군산과 김천이 하나 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군산예술의전당 흥양숙 관리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두 국악 공연은 국악은 진부한 옛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공연으로 우리 소리의 세련됨을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공모사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공연 예정인 차한광대 강제환생 프로젝트 '환생전'은 6월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K-Festival 2024 제10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서 퍼포먼스부문을 대상으로 수상했다.

## 군산 관광자원 집중 홍보 빛났다

K-Festival 제10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 퍼포먼스부문 대상 수상

군산시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K-Festival 2024 제10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서 퍼포먼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Festival 2024는 각 지역의 역사적, 민속적, 문화적, 전통을 소재로 한 축제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통해 전국 축제 정보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이일보, 채널 A, 동인전담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축제 전문 박람회다. 군산시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군산시간여행마를 일원에서 개최되는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적극 알리고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k-관광 섬 등 군산의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지난 4월에도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시간여행축제가 큰 성원을 받아 대중 선호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던 군산시는 k-페스티벌에서도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22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여러 유관기관 축제 관계자가 참여해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축제를 홍보했다.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기구 탑승, 한궁, 타로, 하늘 그네, 보드 체널 및 다양한 장르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와 군산의 여러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종 박람회에서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대학교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랑코포니대학기구(AUF)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프랑스어 도서전 프로그램 사진)

## 전북대, 프랑스 문화 체험 지원

프랑코포니대학기구 지원 받아 프랑스어 도서전 등 3가지 행사 가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랑코포니대학기구(AUF)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프랑스어 도서전과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 개최, 프랑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의 날 등 3가지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21~22일 열린 프랑스어 도서전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프랑스어 도서 142권을 영화와 예술, 여행, 아동/청소년 인물, 문학, 미식 분야로 나눠 인문사회관 208호에 전시, 학생들은 자유롭게 방문해 책을 통해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 특히 이날 선보인 도서는 프랑스 아프리카학과 교수 등이 직접 대전 프랑스 문화원에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으로 선별한 것이다. 이어 22일 오후 3시에는 학생들의 프랑스어

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엿볼 수 있는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프랑스·아프리카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문헌정보학과, 전자공학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경험담을 유창한 프랑스어로 발표했다. 또한 이날 하루 중일 인문사회관에는 프랑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미식의 날' 행사도 마련, 학생들은 프랑스 음식을 직접 맛보며 프랑스의 미식 문화에 대해 체득하는 등 색다른 경험에 매우 큰 만족감을 표했다. 조희립 국제처장은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화 역량을 키워주고, 해외에 취업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비보컬 아카펠라 콘서트' 김제서 6월 7일 열린다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은 세계 각지를 열광시킨 특별초청 비보컬 아카펠라 콘서트 'B VOCAL 비보컬 아카펠라 콘서트'가 오는 6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남성 5인조로 구성된 세계적인 비보컬 아카펠라 그룹 'b vocal'은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유일하게 스페인 정부 선정 스페인을 빛낸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알마 어워드'를 수상했다. 'b vocal'은 지난 2011년 첫 내한공연 이후 올해로 내한 10번째를 맞이한다. 한국에서만 100회 이상의 전국순회공연을 해오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아카펠라 그룹으로 잘 알려진 비보컬은 2019년 팬데믹 이후 드디어 4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명곡을 오직 아카펠라로 재해석해 각 장르별 메들리로 편곡,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라는 것을 아카펠라의 진수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현들의 장엄하고 청중을 압도하는 클래식 곡들을 시작으로 '오페라의 유령'과 '뱀바바' 등 유명한 뮤지컬 넘버 메들리, 추억의 월드팝과 빌보드차트 히트팝, 그리고 열정의 라틴음악들과 오직 목소리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헤비메탈 연주 등 노래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보컬 퍼커션 및 비트박스, 플라멩고 댄스를 뮤지컬보다 재밌고 오페라보다 짜릿한 공연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장권은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도태 기자

##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HR협의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23일 임실 치즈테마파크 지정환출에서 전북지역 일자리 담당자 네트워크 형식 HR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HR협의회는 2015년부터 추진,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간 고용동향파악, 기업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HR협의회 참여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Link3.0사업단),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사)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11개 기관, 40여 명이 참여했다. 여성·중장년·노인·대학생 등 대상별 구인·구직 매칭 우수사례와 일자리기관 간 협



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취업박람회 공동주관, 도내 기업정보 및 수요조사 데이터 기반 협업사업 등을 개발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함께하는 직업상담의 미래' 특강과 함께 참여자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위해 '건강한 발걸음:네발 걷기 노르딕워킹'을 진행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